

---

## Eastern Ascetic Practice and Literacy\*

Junghwan Park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ascetic practice and literacy. The ascetic practice is the process of attaining enlightenment through the process of cultivating. Literacy also achieves self-change and maturation through awareness. Literacy is the ability to read, comprehend, and write, but if the meaning is defined a little more broadly, it has the aspect of transition to a more mature self. In this respect, the two are subject to comparison. Under the premise of inner awareness, ascetic practice and literacy can be seen to bring similar results as like as self-transformation, expansion of freedom, restoration of subjectivity, and practice of mercy. Despite the similarities, both have differences and limitations that cannot be overlooked. If the ascetic practice emphasizes performance beyond language, the difference is that literacy uses language, reason, and rationality as tools. However,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scetic practice and literacy allows us to look at both more closely. A harmonious practice of ascetic practice and literacy can lead to a deeper inner maturity.

Key words : Ascetic practice, Literacy, Enlightenment, Self, Freedom, Subjectivity

---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NRF-2019S1A5C2A04082721).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 on December 4, 2021.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Junghwa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Honam University  
apjhwan@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동양의 수도(修道)와 리터러시\*

박정환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요 약

본고는 동양의 수도와 리터러시를 비교한다. 수도는 연마의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리터러시 또한 자각을 통해 자아의 변화와 성숙을 이룬다. 리터러시는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이지만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의하면 보다 성숙한 자아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수도와 리터러시는 내면의 자각이라는 전제 아래 자아의 변환, 자유의 확대, 주체성의 회복, 타인을 향한 실천으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차이와 한계를 지님도 간과할 수 없다. 수도가 언어를 넘어서는 수행을 강조한다면 리터러시는 언어와 이성, 합리성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도와 리터러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고찰은 양자를 보다 면밀히 볼 수 있게 해준다. 수도와 리터러시를 조화롭게 실행하면 보다 깊은 내면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주제어 : 수도, 리터러시, 깨달음, 자아, 자유, 주체성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NRF-2019S1A5C2A04082721)

이 논문은 2021년 12월 4일 한국리터러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I. 서 론

수도(修道)란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 거창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이 처한 실존과 함께 그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이 살아가고 행하는 삶 자체가 수도인지도 모른다. 리터러시(literacy) 또한 인간이 읽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환경에 노출된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과정이 리터러시인 것이다. 매우 거칠고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수도와 리터러시는 일상의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용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다해도 역시 수도는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리터러시는 조금 더 용이한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둘을 비교하고자 선택한 것은 일상적 삶을 넘어서 마음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도와 외부로부터 텍스트와 지식을 습득하여 자아를 확장해 가는 리터러시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유사한 결과를 낸다는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차이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지향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수도는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다. 자기의 핵심감정을 깨닫고 투명한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판단중지와 같은 노력을 통해 투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인지적 왜곡을 없애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리터러시란 좁은 의미로는 문해력이란 용어로 쓰인다. 무엇인가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 이해를 기반으로 나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리터러시 이해이며 리터러시는 다시 읽고, 이해하고, 쓰는 과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읽기에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읽는 것도 포함된다. 읽기 작업을 통해 텍스트와 나와 주변의 세계를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습득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나의 것으로 소화 시키는 과정이다. 세계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인 텍스트를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내 지식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쓰는 과정이다. 쓰는 과정은 자신이 습득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창발적인 실천이 뒤따른다(Gee, 2019: 72-78).

이상과 같이 읽고, 이해하고, 쓰는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리터러시의 능력이 습득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리터러시 정의를 좀 더 확대하면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리터러시란 “지식과 잠재력을 통해 자신을 이전보다 성숙한 존재로 증진시키는 능력”이라는 넓은 의미를 또한 가지는 것이다(Barton, 2014: 42-48). 즉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발현을 한다면 리터러시를 습득한 주체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폭넓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문해력의 증진이나 지식의 확대가 아닌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리터러시가 인격의 성장이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리터러시를 통해 인격의 도야를 이룰 수 있고 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가 쉽게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수도와 리터러시를 접목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수도는 인격의 도야요, 성숙한 인간 존재로의 변화다. 한편 자신의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리터러시 또한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를 지향한다. 내면의 변화를 거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성숙한 인간 존재로의 변화를 수도와 리터러시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수도를 동양에 한정시켜서 살핀다. 서양의 전통에도 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신의 은총을 중시하는 서구 전통에서는 수도의 형태가 동양과 달라 마음의 정화를 중요시하는 동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먼저 동양의 수도를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만 간략하게 살폈다. 애용지물을 제거하여 핵심감정을 깨닫고 모든 것이 투사라는 것을 알아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을 수도라고 보았다. 마음을 관(觀)하고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것을 수도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리터러시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 장에서 수도와 리터러시를 비교했다. 그 비교는 주로 수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리터러시 습득을 통해서 가져올 결과를 비교하는 형태를 띠었다. 성숙한 인간 존재로의 변화는 둘 다 눈뜸, 자각을 가져온다는 전제 아래 양자를 통해서 변화된 자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주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타인을 위한 자비의 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교해서 논했다.

그다음 장에서는 위와 같은 공통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와 리터러시가 결국은 가질 수 밖에 없는 차이를 논했으며 둘 사이의 비교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논했다. 둘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유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이나 태생적으로 둘의 차이가 크다는 것 또한 밝혔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은 수도와 리터러시에서 그 유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에서는 수도와 리터러시를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서로 보완해주어 인간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 II. 동양의 수도

‘도 정신치료’의 창시자 이동식은 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도는 주객일치요 우주요, 원리요, 주체성이고 무위(無爲)고 부처고 성인(聖人)이고 지인(至人)이고 진인(眞人)이며 무기(無己), 무아(無我), 무념(無念), 인격의 성숙이요 정심(淨心)이고 정심(正心)이라고 무한히 말할 수 있다(이동식, 1986, 28-37).

그러면서 말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깨친 사람이 아무리 깨친 소리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곧 진리는 경험한 사람에게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도는 존재요, 주체성이고 자각이며 자기지배요 내적 지배인 동시에 최고의 성숙이요, 자유이고 또한 자율이며 건설적인 힘이기 때문이다(이동식, 1992: 218-219).

동양에서 수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정이 드러나야 존재가 된다. 자기감정을 표현하면 자기 존재가 있는 것이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이동식, 2018: 46-47). 이것은 마음의 정화로 불교에서는 정심(淨心), 공(空), 장자에서는 심재(心齋), 노자는 무위(無爲), 정신 분석에서는 투사, 역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이동식, 2018: 26).

동양에서 수도의 목표는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려면 애웅지물을 녹여야 한다(이동식, 1986: 35-36). 송나라의 대혜선사는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웅지물 기제각(碍膈之物 既除覺)”(대혜보각선사, 2012: 315). 애웅지물이 없어지면 곧 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싸여온 응어리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애웅지물은 핵심감정(核心感情, Nuclear Feelings)이다<sup>1)</sup>(이동식, 2018: 133-164). 대혜선사가 말한 애웅지물, 즉 가슴에 끼리는 물건을 제거하면 각이고 부처고 성인이고 최고의 정신건강이다. 핵심감정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평생 지배하는 어려서부터 풀리지 않고 있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감정이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파리를 들고 있는 응어리를 없애야 도의 경지에 환하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수도의 목표는 이 애웅지물을 없애는 것이고 핵심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답향시랑』에서 애웅지물이 제거된 후 ‘자나깨나 늘 한결같다’고 했다. 서양사람은 도를 해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매달리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난 것을 말한다(이동식, 2018: 65-69). 수도는 결국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정의 정리, 마음의 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결정짓는 핵심감정이 곧 애웅지물임을 자각하고 핵심감정을 깨달아 의식화 과정을 통해 걸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투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게 불교의 진여고 투사가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의 핵심은 “불취외상 자심반조(不取外相 自心返照)”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 또한 감정인데 모든 것이 감정에 비롯되는 투사라는 것이다. 자기감정에서 투사되어 나오니까 결국은 감정을 정화함으로 해서 투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투사와 관련해서 서양 철학자 후설(Edmund Husserl)이 판단중지를 말했다. 이것은 바로 불교의 지(止)와 같은 것이다(이기영, 2002: 330). 판단중지라는 건 판단하면 투사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인

1) 핵심감정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며 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모든 인간에게서 자신을 형성하고 추동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불취외상’도 판단중지다. ‘자심반조’는 관(觀)이다. 그러니까 후설의 판단중지라는 것은 중간에 생각, 판단을 없애고 물 자체하고 나하고 직결시키는 것이다. 중생이 항상 자기 투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라든지 타인과 세계는 전부 다 착각이라는 것이기에 투사를 버리고 에포케(epoche, 판단중지)를 하고 사물을 보라는 것이다. 판단을 하는 건 전부가 투사이고, 지관(止觀)이란 멈추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나하고 현실 사이에 끼어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이나 취지는 지관이나 마찬가지로. 부처는 “항상 깨닫고 있는 자”로서 깨닫는 시간이 항상 지속되는 자란 말이다(이동식, 2018: 208).

투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수도의 목표가 인지적 왜곡을 없애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 목표는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삼계가 일심이요 만법이 유식으로 일체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것은 대상이나 만상이 실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여여한 색상의 실재세계를 어떻게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자기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미혹한 자가 현실을 보면 사물의 진상이 보이지 않고 마음을 깨친 자가 세계를 보면 세계가 청정하여 진상이 보인다고 함으로 대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혹되어 있느냐, 마음이 자각되어 있느냐에 그 본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류승국, 1991: 65). 『장자』에 “오로지 도만이 허령한 것을 모여들게 한다. 허령하게 되는 것이 곧 마음의 재계이다”<sup>2)</sup>(이강수, 2013: 206-207).라고 했는데 이는 마음의 정화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럼 인지적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나 불교에서는 세 가지 장막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별업망견(別業妄見)은 개별적 경험이 다른 데에서 생기는 착각이고, 동분망견(同分妄見)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착각이다. 생사지심(生死之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처음의 두 가지 장막을 걷어치우고 불안 없이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즉 육체의 질곡을 벗어남으로써 착각(인지적 왜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이동식, 2018: 231). 이렇듯 수도의 목적은 애용지물인 핵심감정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하여 거울과 같이 외부 사물을 투영하고 투사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인지적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서두에 제시한 바 이는 결국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III. 동양의 수도와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본래 학식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litteratus’에서 유래했으며 초기 중세 시대에 ‘litteratus’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로

2)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했다. 영어에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80년대 초반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나 지속적으로 글을 읽어 온 경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김성우, 엄기호, 2020: 17-18). 물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인간은 구두 언어나 노래, 춤과 같은 신체적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해 왔다. 따라서 문자 이전에 존재했던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도 리터러시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리터러시는 문자언어의 한계를 넘어 이미지, 미디어, 소리 등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핵심적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모드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복잡하면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단순히 언어적 기호를 해석하는 디코딩의 기능적 리터러시뿐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인 리터러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부각되고 있는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일컬어 ‘리터러시로의 선회’(Green, 2002: 25-32; 장은영, 2020: 4) 또는 ‘리터러시의 승리’(Gee, 2019: 51-71)라고 말한다.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리터러시를 수도랑 비교하기 위해서 개인이 리터러시로 인해 변화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지식을 통해 이전보다 성숙하게 변모하는 개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도로 인해 변화되는 개인의 모습과 그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리터러시의 이론이 존재하지만 읽고, 이해하고, 쓰는 과정들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변모할 수 있는가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자 한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도약과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리터러시의 습득을 통해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성우, 엄기호, 2020: 71-73). 결국 리터러시의 본질은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나와 사회,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발현과 실천을 하는 데에 있다.

다음 장에서 수도를 리터러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비견할 만한 리터러시의 습득과정의 선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장에서 소개한 수도의 핵심은 투사를 없애고 마음을 닦아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지적 왜곡을 없애는 데 있었다. 비교를 위한 리터러시의 과정은 받아들이는 단계로부터 시작한다. 타자에 대한 관심,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자신의 기존 경험에 새로운 앎을 더하는 탐색의 과정으로 보인다(김성우, 엄기호, 2020: 173, 219). 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애憎지물을 깨닫고 핵심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체화의 단계가 있다. 변화의 단계다. 지식이 증가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룬다. 인격의 형성을 이루는 단계다. 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로부터 취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 투사 없는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연마의 단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리터러시 수행자는 외부로 보게 된다. 리터러시를 통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체가 실천을 통해 외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이다. 수도의 측면에서 보면 수행의 정점에서 타인에 대한 자비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도에서는 자비가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참된 수행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참된 리터러시의 능력은 그 실천으로 인

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Barton, 2014: 31-64).

수도의 과정과 리더러시 수행의 과정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므로 이제 양자를 비교하며 동일한 지향점을 찾아보고 그 차이와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겠다.

## 1. 비교

### 1) 전제-자각

나는 수도를 리더러시와 비교하며 하나의 전제를 세우고자 한다. 수도와 리더러시의 접점이 어디에 있나 하는 문제이다. 나는 우선 이 접점을 깨달음, 자각에서 찾고자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깨우침,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눈뜸, 나와 세계에 대한 각성, 자각 등 보다 유연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각성과 깨달음은 정체성과 주체성 자각, 자아통합, 인격의 변화, 자기 치유 등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수도가 궁극적 실재에 대한 눈뜸이며 자각이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내면에 대한 각성, 자기중심성의 극복은 수도와 리더러시를 비교하며 가지는 하나의 큰 전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각성을 한다면 리더러시의 수행을 통해서도 역시 기존의 자신을 넘어서는 각성과 눈뜸, 깨달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를 통한 자기 각성과 자기 깨침은 이성과 지성의 확대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를 확대하는 리더러시를 비교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자 전제가 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즉 양자를 통해서 모두 일정한 자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양자를 통해서 변화된 결과들을 살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동양의 수도에서는 깨달음을 지칭하는 말로 돈오(頓悟)라는 말을 쓴다. 돈오의 전제는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곁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길희성, 2021a: 791). 이러한 돈오의 과정은 수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나를 깨닫는 작업은 리더러시 과정 중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텍스트나 그 외의 것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단순히 정보의 증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 실재에 대한 경험에 대해 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험적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이 현실화 되는 것은 삶의 어느 특정한 순간에 주어지는 구체적 계기를 만나야 촉발한다”(길희성, 2021a: 806)고 할 수 있는데 수도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 실재에 대한 깨달음이 수도의 영역이라면 진리를 추구하고 이를 자각하는 것은 리더러시의 영역이다. 수도를 통해서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굴레를 벗어난다면 리더러시는 진리에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을 매개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자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약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질적인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수도의 자각과 리더러시의 자각과 도약이 만나는 것이다. 수도에서 얻

는 자각이 리터러시의 과정에서 보면 진리의 자각이라는 생각아래 수도나 리터러시의 행위가 모두 일정한 자각을 이룬다는 것을 공통의 전제로 두고 다음의 글을 진행하겠다.

## 2) 참자아의 발견과 자유

수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진정한 나와 조우하는 것이다. 수도이전에는 내 자아가 이기적이고 사회적인 나로 구성되어 참나는 가리워진 상태다. 그러나 수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간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참자아를 만나게 된다.<sup>3)</sup> 돈오(頓悟), 범아일여(梵我一如), 진속합일(眞俗合一), 개성화과정(individuation)등은 모두 참자아와의 만남을 가리키는 말들로 수도가 경지에 올랐을 때 만나는 진정한 내 모습과의 일치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참나는 단지 개별적 자아, 좁은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간성이며 우주적 자아, 신적 자아이다(길희성, 2021a: 829).

또한 우리는 수도를 통해서 이기적인 자아인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의 변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아는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리는 자아가 아닌 더 큰 실재를 경험한 후 만나는 자아다. 수도자의 자아는 궁극적인 실재와의 조우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자아로 도약하는 것이다. 궁극적 실재를 자아가 경험하게 되면 수도자는 더 이상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좁은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실재 중심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길희성, 2021b: 163). 이렇게 진정한 자아와 만난 이들을 동양의 전통에서는 붓다, 진인, 성인, 도인이라고 부른다. 무위진인(無位眞人)은 인간은 본래 아무 덧붙일 장식이나 결칠 옷이 필요 없고 어떤 것에도 현혹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떳떳한 참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더 큰 실재를 만난 동서양의 성인들이 좁은 자아를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아, 사회적 자아, 물리적 자아를 벗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자기와 긍정적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의 강화 그리고 자기 초월이라는 성숙의 과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또한 자신의 기존의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자신의 의식 상태를 바로 이해해야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때도, 자신을 변화시킬 때도 그 도달점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터러시의 경우에도 과정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성숙을 통해 풍부한 인성을 갖춘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아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확장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내용들을 체화하여 자신의 자아를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한 자

3) 동서양의 많은 종교 전통에서는 이 참나를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내면의 빛, 영혼의 근저, 진아(眞我), 불성(佛性), 진심(眞心), 도심(道心), 속사람, 참사람, 씨알, 알나, 나의 나(I-I), 아트만(atman), 무위진인(無位眞人), 본연지성(本然之性), 자기(selbst)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아는 인간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끔 하며 시야를 확대하도록 만든다. 수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갖는 대아를 만나가듯이 리터러시를 수행하는 사람도 역시 지식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자아를 만날 수 있다. 리터러시를 통해 주어진 세계 속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정초할 수 있는 것은 참나를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인문학적 리터러시란 다른 아닌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에 대한 이해가 첫 출발점인 것이다.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대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의 축적이 소박하고 진실된 내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꾸준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단순한 지식의 획득과 도구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자아의 형성은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성찰을 병행한다면 리터러시를 통해 참자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아의 발견이 가져올 변화 중의 하나로 나는 자유로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를 통한 자아의 발견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가져온다. 하지만 삶의 질곡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 결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깨달음은 일정한 수행이 지난 후 다다를 수 있는 경지다. 대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인간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sup>4)</sup> (Fromm, 2017, 51). 수도를 마음의 정화라고 본다면 자유로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내면과 관련이 있고 내면의 자아를 만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진정한 자신의 자아와 조우한 사람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가들은 참나를 자각하고 자기자신과 하나가 될 때 세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없으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절대 평안과 자유의 경지에 든다고 한다(길희성, 2021b: 35). 나는 리터러시를 통해서도 이런 자유가 가능한가를 질문해 본다. 동시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는 말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자신이 처한 곤궁한 상황에서의 탈출은 그 상황을 조망하고 벗어날 수 있는 시야에서 나온다. 복음서에서는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황을 곤궁한 상황으로 보고 진리를 깨침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다만 리터러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복음서의 진리보다는 하위인 ‘최고의 지성적 앎’ 정도로 범위를 좁히겠다. 물론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진리를 리터러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지식의 축적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회의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최고의 지성을 발휘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리터러시 과정을 통해서도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자각하는 최고의 지성적 앎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자유토록 할 수 있다. 앎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야 문명의 한 예를 보자.

4) 에리히 프롬은 근대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거나 권위에 복종하고자 한다며 자유를 대하는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예리하게 분석했다.

고대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농사와 항해와 무역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명이라고 불리는 마야 문명을 보면 철기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달력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한다. 현대 나사(NASA)가 측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천문을 읽을 줄 알았기에 농사를 짓고 재해를 피하며 자신들의 포르투나(fortuna, 운명)를 헤쳐 나가며 자신들만의 삶의 양식, 즉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주어진 것으로서 자연현상을 읽어낼 줄 알았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김성우, 엄기호, 2020: 273-274).

이 예에서 보면 천문을 읽을 수 있는 리터러시 능력이 이들을 자유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나와 세계에 대한 앎이 자유를 가져오고 사람을 해방하도록 한 것이다. 리터러시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필요조건이 된 것이다.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마야문명인들이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삶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은 천문에 대한 리터러시와 진리의 자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수도와 마찬가지로 리터러시를 통해서도 최고의 지성적 앎을 습득하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유케 될 것이다. 리터러시는 진리를 자각하게 하여 사람을 해방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리터러시는 앎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김성우, 엄기호, 2020: 272-274). 결국 수도를 통해서 참자아를 만난 사람이 자유로움을 경험하듯이 리터러시 과정에서 또한 최고의 지성적 앎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역시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성숙하게 하여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자아와 만나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 3) 주체성의 회복

수도는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주체성이란 내가 나의 주인공임을 자각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내가 우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자각이다. 독립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유를 뜻한다. 주체성이란 주인의식이요, 독립이요, 해방이요, 선택이요,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의 형성과정은 의존에서 독립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예속에서 해방으로 강요함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동양에서 이 주체성을 가장 높이 발휘한 사람은 불교의 부처요, 공자의 성인이요, 도가의 진인이요 성인이다. 주체성은 부자굴부자고(不自屈不自高), 즉 자기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것이다. 조주화상이 말한 바 “사람들은 24시간의 부림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는 경지가 바로 주체성이다. 나 이외의 외부의 힘이나 존재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 주체성이 없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부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주체성이다(이동식, 1992: 71).

주체성의 상실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치게 되어 자기성장을 저해당할 때 나타난다. 건강한 인격은 주체성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길러진 사람이고, 정신이 불건전한 정신증이나 정신병적 인격은 주체성의 상실자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성숙이나 완성이 주체성의 확립이요, 최고의 경지는 도(道)를 깨친 각(覺)의 경지다. 주체성의 침해나 상실은 주체성의 순조로운 형성에 필요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할 때 없거나, 없어야 할 때 강압되거나 간섭과 방해가 심할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일어난다. 소화(消化)되지 못한 기억들, 만족시키지 못한 욕망들, 해소(解消)되지 못한 공포,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들, 유화할 수 없는 양심의 요구들, 사용되지 못한 능력들, 불완전한 동일성, 억압된 영적 요구들, 이러한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전진을 방해하고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이동식, 1992: 73).

한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보면 책을 읽거나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 또한 주체적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며 자신의 무의식과 함께 변혁시키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읽고 쓰는 것의 행위는 세계를 낳는 역동적 행위이다. 또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행위이다. 새로운 세계란 주체성을 드러내고 형성한 세계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읽고 쓸 줄만 알면 자신을 변혁시킬 수 있다. 읽는 과정뿐만 아니라 쓰는 과정, 즉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변화란 다름아닌 내적인 변혁이며 주체성의 회복이다. 이러한 변혁은 텍스트를 통해서나 깨달음을 통해서나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다른 세계를 알게 되는 두려움에 놓이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확립하게 된다. 자기 세계의 틀을 넘어서는 외부의 강렬한 힘에 굴복할 때 자기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를 넘어서는 변화의 힘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리터러시를 통해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 할 수 있다(한금운, 2017: 254-259). 이러한 과정들 모두가 주체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리터러시를 통해서 주체성의 회복을 가능케 하려면 외부의 텍스트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필요도 있다. 외부의 텍스트가 온전히 나와 일치하는 경험으로 일종의 수도에서 하는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리터러시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도를 통한 주체성의 회복은 리터러시의 완성 후 자유와 독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나의 주체성을 최고로 견지할 때는 타인의 주체성도 최고로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또한 과정을 통해 일정경지에 이른 사람은 타자의 지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주체성의 극치의 단계는 리터러시의 최고의 완성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완성을 이룬 후 이어지는 타인을 위한 실천의 단계로 나아간다.

#### 4) 실천

수도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딪치는 질문은 나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의 행위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 홀로 산속에서 행하는 수도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자

신의 구원이 타인의 구원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십우도(十牛圖)의 마지막 장면은 깨달은 이가 시장 바닥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림이지 아니한가(Rajneesh, 1999: 296-329).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의 구원에 대한 실천으로 저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자신의 구원은 저절로 자비의 행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으로까지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수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그 경험이 있는 이후 드러나는 삶의 열매에서 찾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깨침에 제대로 된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수도가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수도와 같은 실천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또한 자연스레 타인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질까? 지식, 앎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 실재와의 만남을 이루는 수도에서는 제대로 된 수행이 반드시 타인을 위한 자비행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과연 그 지식대로 자연스레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행합일은 제대로 된 앎은 제대로 된 실천으로 귀결된다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리터러시의 실천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Barton, 2014: 92-120).

리터러시의 실천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유형의 텍스트를 읽는 것뿐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그런 텍스트에 대해 말하고 텍스트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수용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Cee, 2019: 77). 제임스 폴 지는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리터러시가 필연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로 이어진다는 생각, 이른바 ‘리터러시 신화’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실천에서 분리해 낸 리터러시 자체로는 효력이나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자리 잡았던 사회적 실천이다(Gee, 2019: 78).

결국 리터러시의 완성은 실천에 와셔야 의미가 있고 완성되는 것이다. 리터러시 경험의 참과 거짓의 정도는 경험으로 인한 변화에 달려있다. 아무리 리터러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이 개인의 삶 속에 머물러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씨앗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한 경험의 씨앗이 개인을 넘어서 이웃들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바로 인격적 만남이 탄생 되는 삶의 과정이고 그것의 완성이 사랑이다(김재영, 2021: 408-409).

김영순 역시 리터러시에 있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리터러시와 프락시스(Praxis)의 변증법에 대해 말하면서 리터러시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넘어 인간해방에 기여한다고 기술한

다. 즉 리터러시는 프락시스, 다름 아닌 행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영순, 2020: 30-35). 물론 여기서의 실천은 정치참여적인 인간해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 해방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이에 동의하면서 리터러시에 있어 행함, 실천이 마지막의 종착점이라고 본다. 리터러시를 프락시스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는 수도의 마지막이 자비의 행이듯 리터러시도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도와 리터러시의 접점이고 전제였던 각성의 행위가 자신의 변화를 거쳐 타인을 위한 구제의 길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리터러시의 확장된 개념을 넘어 행함에 완결점을 갖는다면 결국 수도와 리터러시의 마지막 단계는 타인을 위한 구제이고 이것은 역으로 자기 자신의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차이-한계

앞에서 수도와 리터러시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동일한 지향점에 대해 논하였지만 이 양자사이에 분명한 차이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와 리터러시라는 개념에서부터 양자가 속해있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차이가 더 클지도 모르겠다.

우선 눈에 띄는 차이는 수도와 리터러시는 대상의 선택에 있어 차이를 지닌다는 점이다. 수도의 경우 자신의 내적 현실에 눈뜨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하나(一)를 알면 다(多)를 안다고 하는 동양적 사고 전통의 선상에 있다. 모든 상황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현실을 알고 내 마음을 바꾸는 방식을 택한다. 마음을 정화하고 투사를 없애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외부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된다. ‘불취외상 자심반조’라고 하여 외부에서는 취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마음을 관(觀)할 뿐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하지, 외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리터러시는 대상이 되는 텍스트나 상황이 중요하다. 내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외부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습득해야 한다. 일차적인 집중과 관심의 대상이 외부에 있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를 접하느냐가 리터러시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심사다. 수도가 외부의 것을 부정한다면 리터러시는 외부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차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경』 48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지식을 증가해가는 것이요, 도를 추구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가는 것이니,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른다.”<sup>5)</sup>(최진석, 2009: 370) 나는 이 구절이 수도와 리터러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이는 수도가 도를 체득해가는 과정이라면 리터러시는 지식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

5)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같다. 깨달음, 자아의 발견, 자유, 실천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동원해 양자 사이의 공통된 지향점을 밝히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지금 언급한 바로 이 구절의 범위를 양자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리터러시는 언어를 동원해야 하고 이성을 사용해야 하며 합리성을 중시해야만 한다. 언어를 넘어서고 마음을 직관해야 하는 수도와는 태생적으로 차이와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수도가 마음을 비우며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리터러시는 자아를 계속 확장해 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리터러시는 수도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될 위험도 있다. 도덕경의 구절처럼 결국 버려야 할 지식을 열심히 쌓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언어와 합리적 지성을 통해 궁극적 실재를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선가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리터러시에서의 개념과 지성은 달을 지시하는 손가락일 수 있다. 수도가 궁극적 실재를 직접 마주하려고 노력한다면 리터러시는 언어와 개념을 궁구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도와 리터러시는 선택에 따른 행동양식에 있어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리터러시에서는 이성, 지성, 즉 언어화, 개념화, 논리적 사고 등이 불교의 지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수도가 동양의 실천적 전통 위에 서 있다면 리터러시는 이성의 작용을 중시하는 서양의 철학적 전통, 학문의 전통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는 자기 정화, 극기를 더 요구하는 듯하며 리터러시에서는 이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는 일체의 의식적, 무의식적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통해 참된 자기를 깨달음으로써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실현한다(윤호균, 1991: 144). 무의식의 의식화와 정화가 일차적인 목표이다. 수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변화는 의식적 차원만의 변화가 아니라 무의식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치열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인 무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진짜 자기와의 만남, 참나와의 만남은 무의식의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현상적인 자아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수도의 가장 큰 목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변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리터러시는 의식의 차원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룬다.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더해나가는 작업을 한다. 물론 리터러시를 통한 의식의 확대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것이다. 불교의 혼습 개념을 리터러시에 적용해 본다면 지식의 축적은 분명 무의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 자체의 정화가 리터러시의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자기검토,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리터러시의 과정 중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 동반되어야만 수도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리터러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리터러시의 과정 속에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 텍스트를 받아들여 쓰는 창발적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리터러시의

수행 속에 자기검토와 자기반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자기검토와 자기성찰,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리터러시의 과정에서 한 차원 높은 수도로의 이행을 또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은 당연히, 과연 수도와 리터러시를 통해서 도달하는 경지가 같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주체성의 확보를 통해 자각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수도에서 도달하는 깨달음과 자각의 경지를 과연 리터러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본장에서 참나와의 만남, 자유의 증진, 주체성의 회복으로 절을 나누어 살펴 보았지만 양자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수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아, 수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수도를 통한 주체성의 회복은 리터러시에서 만나는 자아, 리터러시의 자유, 리터러시의 주체성보다는 더 깊은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한 리터러시가 과연 수도에서 도달하는 초월적인 측면을 담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앞서 수도와 마찬가지로 리터러시도 타인의 구제까지 이어지는 실천을 언급했지만 결국 그 도달점에 있어서는 리터러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과 합리성과 자기 정화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날로 날로 멀어가는 수도와는 질적인 면에서 한계를 지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IV. 결 론

이상으로 나는 수도와 리터러시를 비교해 보았다. 수도는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아진 삶을 동경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수도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사를 벗어나서 구원으로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리터러시 역시 주어진 조건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모를 지향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들려고 한다. 성숙한 존재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그 과정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나는 수도와 리터러시의 공통점은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자각의 행위라고 결론짓는다.

수도는 정신적 갈증이나 실존적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적인 무의식적 감정이나 욕구는 물론 일체의 의식적, 무의식적 감정, 욕구,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까지도 벗어나 본래적 자기를 실현토록 하는 작업이다. 리터러시가 습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을 변모시키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수도는 자기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모든 집착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는 수도자로 하여금 청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들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체의 욕망과 감정, 견해 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즉 미숙한 어린 시절의 욕구나 감정, 생각들에 의해 묶여 있던 자아가 해방되며 이러한 해방은 곧 자아의 강화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욕구와 감정 및 생각들을

보다 잘 지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윤호균, 1991: 127-132).

리터러시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자아의 강화를 통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가진다. 수도가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한다면 리터러시에서는 기존의 선입관을 배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신의 내부를 정화하고 편견과 사심을 버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외부의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아를 풍부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리터러시는 수도의 자비행과 같이 외부 텍스트의 습득을 넘어서 창의적인 창발의 과정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 창발의 단계가 다름 아닌 깨달은 후의 속세로 돌아온 수도자의 삶이고 보살의 행위와 비슷한 것이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실천에 이르는 행위는 구원을 얻은 자의 특권이자 의무와도 같다. 수도는 자기를 실현 또는 초월함으로써 일체의 자신의 욕구와 감정, 견해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는 어린 시절에 조건 형성된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생각들만이 아니라 현재 그가 의식하고 경험하는 온갖 생각이나 감정, 욕구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으로 차있는 슬기로운 자기 즉 대아를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참된 의미의 자기실현이며 자기 성숙이며 성불이다. 일체의 자신의 욕구, 감정, 견해들로부터의 해방은 달리 말하면 일체의 동일시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와 같은 성숙과 해방은 반복적인 리터러시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성취가 가능하다(윤호균, 1991: 132).

수도와 리터러시는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수도에서는 자신과 세계를 아무런 선입견이나 개인적 욕구와 감정을 투사시켜 보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직관적 이해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반면 리터러시는 자신과 세계를 보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객관적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자신을 타인이나 규범의 틀을 가지고 평가 판단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적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윤호균, 1991: 146). 수도에는 돈오 후에 점수가 있다. 수도는 명확한 인식의 전환, 인식의 우주적 전환이 계기가 된다. 즉 언어를 초월한 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찰과 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치열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리터러시의 과정에서 자기 변화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수도 못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장에서 나는 수도와 리터러시를 비교하며 양쪽을 행했을 때의 결과의 유사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 자각이라는 전제를 두고 자아의 확장, 자유의 증가, 주체성의 회복, 실천으로의 회향 등을 논했다. 살펴본 대로 수도와 리터러시는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본고를 시작하며 양자를 비교하여 얻고자 했던 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유사성이 있지는 하지만 둘을 동일시하거나 결과가 아주 똑같다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유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그 차이와 한계가 보인다. 선과 정신분석을 비교한 프롬(Erich Fromm)도 수도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의 유사점을 논하면서도 그

차이를 말한 바 있다.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지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존재라는 말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에서 의지로서의 문제이다.....지성으로부터 어떤 궁극적인 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존재의 근본 아래에 깊이 묻혀 있다(Fromm, 1992: 194).

프롬은 리터러시의 지성이 수도의 근본지점에 다다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리터러시는 아무래도 수도의 선(先)전제와 같다는 견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터러시를 무조건 폄하하거나 수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프롬은 다시 말한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는 그대들이 나를 철저히 반지성주의자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 여기서 나는 지성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궁극적인 실상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헛된 생각, 즉 실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할 때에 바로 그 지성이 필요하게 된다(Fromm, 1992: 195-196).

프롬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수도와 리터러시는 일종의 보완관계임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석이 이루어진 후 수도를 하면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한다.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 합리적으로 자신을 바라본 후 수도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무조건 수도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성철스님이 깨달으려거든 책도 읽지 말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선(禪)과 교(敎)의 일치를 강조하는 전통에 오히려 무게를 둔다. 선과 교는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그의 가르침이다.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강을 건너 후 뗏목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선교일치의 견해를 존중하며 수도와 리터러시의 병행적 실천을 통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많은 장점들을 발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는 수도와 리터러시의 조화로운 실행을 제안하고 싶다. 양자를 보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양자를 적절히 사용하는 실행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성과 지성이 작용해야 할 때는 이성의 힘을 빌리고 직관에 의한 수도가 필요할 때는 수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수행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리터러시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수도의 영역인지를 논문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조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 References

- 길희성 (2021a). 영적 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Keel, H. S. (2021a). *Spiritual Humanism*. Seoul: Akanet.
- \_\_\_\_\_ (2021b). 종교에서 영성으로.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eel, H. S. (2021b). *From Religion to Spirituality*. Seoul: Dongyon.
- 김성우, 엄기호 (2020).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서울: 따비.  
 (Translated in English) Kim, S. U., Um, G. H. (2020). *Will YouTube Devour Books*. Seoul: Dabi.
- 김영순 (2020). “다문화 사회의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김영순 외.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하남: 박이정.  
 (Translated in English) Kim, Y. S. (2020). Literacy and Praxis in a Multicultural Society. Kim, Y. S. et 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Literacy*. Seoul: Parkijung.
- 김재영 (2021). 고전 종교심리학 운동 연구. 서울: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Kim, C. Y. (2021). *Classical Religious Psychology Movement Research*. Seoul: Akanet.
- 대혜보각선사 (2012). 서장. 서울: 운주사.  
 (Translated in English) Dahae. (2012). *Letter*. Seoul: Unjusa.
- 류승국 (1991).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비교”. 류승국 외. 도와 정신치료. 서울: 소암 이동식 선생 고회기념 사업회.  
 (Translated in English) Ryu, S. K. (1991). Comparison of Traditional Thinking and Values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Ryu, S. K. et al. *Tao and Psychotherapy*. Seoul: So-am Lee Dongsik Teacher Gohui Memorial Association.
- 윤호균 (1991). “정신치료와 수도”. 류승국 외. 도와 정신치료. 서울: 소암 이동식 선생 고회기념 사업회.  
 (Translated in English) Yoon, H. G. (1991). Psychotherapy and Ascetic Practice. Ryu, S. K. et al. *Tao and Psychotherapy*. Seoul: So-am Lee Dongsik Teacher Gohui Memorial Association.
- 이강수 (2013). 장자. 서울: 도서출판 길.  
 (Translated in English) Lee, G. S. (2013). *Chuang-tzu*. Seoul: Doseochulpan Gill.
- 이기영 (2002). 원효사상. 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G. Y. (2002). *Onehyo Thought*. Seoul: Korean Buddhist Research Institute.
- \_\_\_\_\_ (2018). 대승기신론 강의 하권.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G. Y. (2018).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Second Volume*.

- Seoul: Korean Buddhist Research Institute.
- 이동식 (1986). “도의 현대적 의의”. 도의 현대적 의의. 한국정신치료학회 공개 심포지움 자료집.  
(Translated in English) Lee, D. S.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Tao.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Tao*. A Collection of Material from the Korean Psychotherapy Association Open Symposium.
- \_\_\_\_\_ (1992).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D. S. (1992). *Korean Subjectivity and Tao*. Seoul: Iljisa.
- \_\_\_\_\_ (2018). 도 정신치료 입문. 서울: 한강수.  
(Translated in English) Lee, D. S. (2018). *Introduction to Tao Psychotherapy*. Seoul: Hangangsu.
- 최진석 (2016).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Translated in English) Choi, J. S. (2016). *Dodukyeong Listening to Lao-tzu's Voice*. Seoul: Sonamu.
- Barton, David. *Literacy: An Introduction to the Ecology of Written Language*. 김영란 · 옥현진 · 서수현 옮김 (2014).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
- Fromm, Erich. *Zen and Psychoanalysis*. 김용정 옮김 (1992). 선과 정신분석. 서울: 원음사.
- \_\_\_\_\_. *Escape from Freedom*. 김석희 옮김 (2017).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휴머니스트.
- Gee, James Paul.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김영란 외 옮김 (2019). 사회언어학과 다른 리터러시: 담론과 이데올로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Green, B. (2002). A Literacy Project of our own? *English in Australia*, 134, 25-32.
- Han, K. Y. (2017). Literacy in Literature and Religion, Another Revolution. *Literature and Religion*, 22(4), 245-265.
- Jang, E. Y. (2020). A Study on the Interface between Critical Literacy and Multicultural Literacy: Focusing on H. Janks' Literacy model.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1), 1-26.
- Janks, Hilary. *Literacy and Power*. 장은영 외 옮김 (2009). 리터러시와 권력.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Park, J. H. (2018). Religion, Tao, Healing: Towards Religious Citizens through the Restoration of Identi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8, 77-93.
- Rajneesh, Osho. *The Search, Talks on the Ten Bulls of Zen*. 손민규 옮김 (1999). 십우도: 근원을 찾아 떠나는 구도여행. 서울: 태일출판사.